“치열했던 그라운드 삶…FA의식 않고 매 순간 최선”

‘7년 연속 130경기 출장’으로 내구성 입증한 KIA 박찬호

커리어 하이 찍고 ‘V12’ 선봉…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
“오늘의 결과보다 내일의 목표를” 후배들에게 긴 호흡 조언
팬들의 뜨거운 응원, 오늘의 나를 버티게 해 준 숨은 원동력

KIA 박찬호가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애리·조영권 인턴 기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가 내년 첫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에도 7년 연속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팀의 중심을 지킨 그는 “FA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 매일 그라운드에서 이기기 위해 준비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찬호는 지난달 2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첫 FA를 앞둔 부담감은 없느냐는 질문에 “FA를 의식하지 않았다. 신경 쓴다고 홈런 30개를 치는 건 아니다. 그저 평소처럼 경기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답했다. 이어 “항상 팀 성적을 먼저 생각해 왔다.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오직 시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협상보다 팀 승리를 위한 꾸준한 준비를 강조했다.

박찬호는 2014년 KIA 2차 5라운드(전체 50순위) 지명으로 입단했다.

신인 시절에는 17경기 출전에 그쳤으나, 이 경험이 프로에서의 긴 여정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

2015년과 2016년에도 백업으로 꾸준히 기회를 얻으며 성장했고, 2019년부터는 팀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아 지금의 꾸준함을 만들었다.

박찬호의 커리어는 수치로도 빛난다.

통산 1천86경기에서 타율 0.266, 949안타, 351타점, 187도루를 기록했고, 출루율 0.328·장타율 0.332를 남겼다. 볼넷 336개는 그의 빼어난 선구안과 안정적인 테이블세터 운용을 입증한다.

특히 주루 센스와 기동력은 꾸준히 리그 상위권을 지켰다.

2019년과 2022년에는 각각 39도루와 42도루로 도루왕에 올랐고, 2023년에도 30도루로 3위를 기록했다.

또 2021년과 2023년에는 3루타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2년에는 81득점으로 리그 8위에 오르며 출루 이후의 득점 생산력도 증명했다.

이처럼 박찬호는 도루·3루타·득점 등에서 리그 정상급 기량을 오래도록 유지해 온 기록형 유격수다.

공수에서 모두 안정된 활약을 이어간 그는 어느새 내야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기반 위에서 맞이한 최고의 순간은 지난해였다.

시즌 타율 0.307, 86득점, 158안타, 61타점을 기록하며 커리어하이를 작성했고,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타율 0.318(22타수 7안타)을 기록하며 팀 통산 12번째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그 공로로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이 업적은 그가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 시즌이기도 했다.

올해 역시 그의 변함없는 활약은 빛났다.

31일 기준, 132경기에서 타율 0.287, 146안타, 5홈런, 40타점, 27도루를 기록하며, 출루율 0.365·장타율 0.360·OPS 0.725를 남겼다.

득점권 타율 0.295, 멀티히트 37회, 도루 성공률 81.8% 등 세부 지표도 견고하다.

무엇보다 7년 연속 130경기 이상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갔다.

유격수는 체력 소모와 부상 위험이 큰 자리인 만큼 이 기록은 더욱 값지며, KBO 리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정표다.

박찬호는 “그저 끝까지 잘 버텨온 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며 “매 시즌 팀을 위해 그라운드에 서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데뷔 10년 차를 맞은 박찬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해 우승의 감동과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내야수들에게는 긴 호흡의 야구를 당부했다.

“하루하루 성적표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으면 즐기고, 좋지 않으면 다음을 준비하는 현명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유격수 수비는 도전적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 도전적인 수비를 강조해 왔다”고 조언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뤘다는 그는 앞으로의 목표를 팀에 두고 있다.

“골든글러브도 받고 타이틀도 따봤다. 이제는 내가 속한 팀이 강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모두가 이기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팬들에게 깊은 사과와 다짐을 전했다.

“올해는 팀 성적이 부진해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 팬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한 시즌을 치르면서 매 순간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팬들의 응원에 대해서도 “항상 큰 힘이 된다”며 “시즌을 치르는 동안 매일 이기기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그저 기억되는 선수로 남고 싶다. 우리 팀이 우승했을 때 함께했던 선수로 이름이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야구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FA라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며, 변함없는 준비와 헌신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가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팬들과 뜨거운 한가위 情 나눈다

3-5일 ‘주토피아 앙코르 팝업스토어’ 이정효 감독 등 선수단 팬 사인회…현장 이벤트 풍성

프로축구 광주FC가 풍성한 한가위 연휴를 맞아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2시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1층 중앙광장에서 이정효 감독과 선수단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 및 스킨십 행사를 진행한다.

사인회가 열리는 장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주토피아 앙코르 팝업스토어(이하 앙코르 팝업스토어)’ 현장으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린 뒤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광주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운영된다.

광주는 추석을 맞아 팬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선수단이 직접 현장을 찾는다. 먼저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2시부터 ‘효버지’ 이정효 감독을 비롯해 ‘베테랑’ 안영규, 주세종 선수가 사인회를 진행해 팬들과 스킨십에 나선다.

이어 대구전 홈경기 당일인 4일에는 선수단 사인회를 포함해 광주FC 홍보대사 조빈이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조빈 홍보대사는 추석 연휴에 맞춰 구단 서포터즈 ‘빛고을’과 함께 새 응원가 녹음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 팝업스토어에서는 K리그와 주토피아 테마 상품(머플러, 짐색, 인형 키링 등)이 판매되며, 주토피아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된다.

또한, 팝업스토어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과 공인구,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희중 기자

최인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8월 9일)

천문역원 (062) 673-2427

子

외형이 화려한 것도 좋지만 오늘은 수수한 것을 택하자.

36년생 무언의 약속이 있으나 그것을 지키는 힘이 없으면 아무의미 없다. 60년생 일감이 늘어나는 현상은 좋으나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받지 마라. 72년생 애당초 힘든 일이 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84년생 일이 중복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법이다. 96년생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누군가 날 도와준다. 08년생 솔직 담백한 모습도 보기 좋으나 선의의 거짓말도 가끔은 필요하다. ※행운의 수: 4,8 ※행운의 색: 보라색

丑

감정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49년생 속에 있는 말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해지는 날이다. 61년생 비능률적인 활동을 삼가하자. 73년생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선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눈을 떠라. 85년생 돈보다 인맥이 튼튼해야 건실한 성장이 가능하니 생각을 달리하자. 97년생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방법 때문이다. 09년생 보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행운의 수: 3,5 ※행운의 색: 녹색

寅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내팽개치면 새로운 일도 풀리지 않는 법이다.

50년생 너절한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자. 62년생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4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험담하지 말고 덕담을 해야 복이 따른다. 86년생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아닌 사람은 들러리만 선다. 98년생 발로 뛰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머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다. 10년생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명심하라.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회색

卯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마음에 상처가 더 크게 남기 마련이다.

51년생 부채 관계로 복잡한 사람은 더 솔직하게 처지를 밝힐 때이다. 63년생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지출이 잦아지면 자금압박을 받는다. 75년생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면 머지않아 크게 발전할 수 있다. 87년생 사업자는 인력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99년생 무언가 엇갈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는 등을 보이지 말고 나가자. 11년생 많이 아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행운의 수: 0,2 ※행운의 색: 황금색

辰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근심이 많아지는 법이다.

52년생 감정적인 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 64년생 현재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에 고민이 해결된다. 76년생 배움의 시기란 따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갖자. 88년생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상당한 발전이 기대된다. 00년생 멀리 있다고 외면하지 말고 가까이 있다고 눈길 주는 건 어리석다. 12년생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삼가고 시선을 낮은 곳에 두면 길하다. ※행운의 수: 3,7 ※행운의 색: 분홍색

巳

궁색한 변명에 질리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닌 것 같다.

41년생 심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온다. 53년생 사방에 흩어진 것을 한곳에 모으면 반전이 생기는 날이다. 65년생 침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재운이 왕성해진다. 77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면 되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방법이 없다. 89년생 두리번거리지 말고 목표가 정해지면 곧장 달려가는 것이 시급하다. 01년생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흰색

午

환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보인다.

42년생 힘이란 균형이 맞으면 마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며 힘든 날이다. 54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기 쉬우나 그 내용이 달라 걱정이 없다. 66년생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빨리 자리를 옮기자. 78년생 바쁘다고 소득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한가한 것보다 바쁜 것이 좋다. 90년생 상식 이하의 행동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세균과 같다. 02년생 자신과 관련된 것을 인정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요청하면 대길하다.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빨간색

未

오르고 내리는 편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43년생 부족한 것은 채우지만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지킬 수 없다. 55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지출도 늘어나지만 여러 사람이 행복해진다. 67년생 산허리를 넘나들고 있으니 고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기 직전이다. 79년생 의외의 상황에 당황할 수 있지만 차분히 대처하면 쉽게 벗어난다. 91년생 이성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노력이 서서히 열매를 맺는 좋은 운세다. 03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으니 적당히 망각하고 생활하라.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보라색

申

가슴을 크게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44년생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선택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56년생 불·물을 조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대응하자. 68년생 파전에 막걸리 한잔이 그리운 건 삶의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이다. 80년생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특별히 할 일은 없다. 당신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92년생 생각이 곧 운명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04년생 사소한 일에 호들갑 떨지 말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라. ※행운의 수: 3,5 ※행운의 색: 노란색

酉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 일에 별다른 막힘도 없고 쉽게 풀리는 하루다.

45년생 정신없이 바쁘게 다녀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하루겠다. 57년생 여기저기서 온갖 것들이 날뛰니 마음을 다스리면서 때를 기다리자. 69년생 나뭇가지에 잎이 너무 무성하면 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81년생 소망하는 것은 이루기는 힘들어도 비슷한 것을 성취하니 행운이다. 93년생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보자. 05년생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고민하라.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초록색

戌

기억에 지워진 것들을 하나씩 들추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46년생 격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면 난처해지는 하루다. 58년생 단기적인 계획을 철회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70년생 힘이 강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82년생 변변하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격지심에 불과하다. 94년생 가지가 많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당연히 많으며 그게 현실이다. 06년생 지나간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문을 열자. ※행운의 수: 6,8 ※행운의 색: 은색

亥

마음이 상해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안에 관심을 두자.

35년생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주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59년생 무게감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힘들어도 조금 무거운 것이 좋다. 71년생 불안정한 시기에는 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 안정을 찾자. 83년생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손에 쥐는 것도 그에 비례해서 한층 커진다. 95년생 운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07년생 모자란 것은 보충하면 되고 넘치는 것은 나누면 모든 게 해결된다. ※행운의 수: 1,3 ※행운의 색: 갈색